

남자 간호학생의 성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셀프리더십과의 관계

김원종¹, 김종경^{2*}

¹을지대학교 간호대학, ²김천대학 간호학과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tereotype, Major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in male Nursing Students

Won-Jong Kim¹, Jung-Kyoung Kim^{2*}

¹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의 성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셀프리더십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G도에 위치한 4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학생이며,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ANOVA를 하였다. 본 연구결과 남자 간호학생의 성고정관념 평균은 1.31 ± 0.17 점, 전공만족도 평균은 2.95 ± 0.51 점, 셀프리더십은 2.98 ± 0.43 점으로 나타났으며, 성고정관념과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공만족도는 학교와 전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적이 높으며,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일수록 점수가 높았다. 셀프리더십은 나이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았고, 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성고정관념이 남자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주도적 삶에 영향을 주는 셀프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추후 남자 간호학생이 간호학 분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gender stereotypes, majors subject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in male nursing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1, 2018 to December 10, 2018, enrolling male nursing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four nursing departments located at G-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ANOVA, by applying the SPSS 22.0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e average gender stereotype of male nursing students to be 1.31 ± 0.17 , average of major subject satisfaction 2.95 ± 0.51 , and self-leadership 2.98 ± 0.43 .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revealed that major satisfaction scores are higher for students who think positively about school and major, have higher grades, and choose their major after considering their aptitude. Self-leadership was higher with age and school year, and among students who selected their major after considering future employment opportuniti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male nursing university students to help them to adapt well in the field of nursing.

Keywords : Gender Role, Leadership, Male Nursing, Nursing Student, Satisfaction.

본 논문은 2018년도 김천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gc18029)..

*Corresponding Author : Jung-Kyoung Kim(Gimcheon Univ.)

email: jj2c@nate.com

Received July 8, 2019

Accepted October 4, 2019

Revised August 12, 2019

Published October 31, 2019

1. 서론

최근 의료서비스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고객의 요구도와 그에 따른 업무영역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 중심으로 생각되어진 간호사의 직업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간호사의 직업 전문성 인식 확대와 취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점차 성고정관념을 벗어나 남성이 간호직을 택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1]. 최근 남자간호사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1962년 처음 남자 간호사가 배출된 이래 매년 그 수가 늘어나 2010년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남자간호사의 수가 642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였고, 2012년 7.5%이었으며, 2015년에는 8.7%를 차지하는 등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

이렇듯 여성 중심이었던 간호전문직에 남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간호사의 성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직업선택에 남녀의 성 평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간호사라는 직업적 안정성을 고려한 남학생의 입학이 증가되는 사회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3]. 그러나 남학생이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고 난 후 적응에 실패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여학생보다 많은데 sullivan(2000)의 연구에 따르면 점차 적응에 실패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하였다[4]. 이는 간호사라는 여성 중심적 성고정관념이 자리 잡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일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며, 각 성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실습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5].

일반적으로 남자 간호학생은 이론과 실습을 통한 간호학을 접하면서 다양한 냉대, 역차별, 역할 갈등, 고립감 등을 겪으며 이런 형태의 성고정관념에 따른 성역할 갈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변의 지인, 친구, 간호사, 학교, 환자 및 보호자 등 일반인들의 선입견 등에 의한 성고정관념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6-9].

성고정관념이란 성별과 연관되어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견해와 사고이며 비교적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잘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해당하는 성별의 대상자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하기도 하여 전공 만족도를 저하시키기도 한다[10]. 특히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사고가 보다 성숙해지며, 진로 준비에 있어 긍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따라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 간호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진로 준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고정관념과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셀프리더십을 들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학생의 진로에 대한 태도 및 스스로의 목표 설정과 달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내적으로는 동기부여를 외적으로는 목표 달성 행동을 자기 주도적 사고와 태도를 갖추게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공에 대한 적응을 하도록 도와준다[12]. 따라서, 셀프리더십을 발휘하는 학생은 능동적이며, 자기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한다. 또한 남자 간호 학생들에게 성고정관념을 벗어나도록 하고 스스로 전공에 대한 만족을 향상시키며, 간호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게 하여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진로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최근에는 남자 간호사나 남자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성 역할갈등에 대한 연구[13], 남자간호사의 성고정관념 및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14], 성 역할갈등이 직무 만족과 조직의 몰입에 대한 연구, 성고정관념에 따른 조직몰입도 및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8, 15-17] 등이 있었으며, 남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남자 간호학생의 직업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18],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연구[19]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성고정관념,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간호학과 특성상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학과이며, 간호학은 성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 중심적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전공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남자 간호학생의 성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셀프리더십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남자 간호학생이 간호학 분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의 성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셀프리더십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G도에 위치한 4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학생들로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였다. 총 1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3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완전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최종 12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시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시간,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위험성 및 개인정보 비밀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내용은 연구의 목적외로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알렸다. 또한 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성고정관념

성고정관념은 김동일[18]이 개발한 것으로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가정적 성고정관념, 사회적 성고정관념, 직업/외형적 성고정관념, 심리적 성고정관념, 지적 성고정관념의 5개 영역으로 나뉘고, Likert 5점 척도로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동일[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 \sim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2.4.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이동재[20]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평가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만족 3문항, 교우 관계에 대한 만족 3문항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동재[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4.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21]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김한성[2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평가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행동전략 9문항과 인지전략 9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한성[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셀프리더십을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 3) 성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총 대상자는 127명으로 나이는 20세 이하 10명 (7.9%), 20세 이상 35세 이하 112명(88.2%), 25세 이상 5명(3.9%)이었다. 학년은 2학년 44명(34.6%), 3학년 63명(49.6%), 4학년 20명(15.7%)이었고 종교는 무교 65명(51.2%), 기독교 44명(34.6%), 불교 10명(7.9%), 천주교 7명(5.5%) 순이었으며 학교만족도는 보통 64명(50.4%), 좋음 49명(38.6%), 매우 좋음 10명(7.9%) 순이었다. 전공만족도는 좋음 49명(38.6%), 보통 64명(50.4%), 매우 좋음 20명(15.7%) 순이었고 성적은 3.0~3.9 93명(73.2%), 2.0~2.9 25명(19.7%), 4.0이상 5명(3.9%), 1.9이하 4명(3.1%)순이었다. 지원동기는 타인의 권유 44명(34.6%), 취업을 고려 39명(30.7%), 적성을 고려 35명 (27.6%), 기타 9명 (7.1%)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N=127)

Variables	Categories	n(%)	M±SD
Age(yer)	≤20	10(7.9%)	22.46±1.72
	20~25	112(88.2%)	
	≥25	5(3.9%)	
Grade	2	44 (34.6)	2.8±.68
	3	63(49.6)	
	4	20(15.7)	
Religion	Protestant	44(34.6)	
	Catholic	7(5.5)	
	Buddhist	10(7.9)	
	None	65(51.2)	
	Other	1(0.8)	
College satisfaction	Bad	4(3.1)	
	Not bad	64(50.4)	
	Good	49(38.6)	
	Very Good	10(7.9)	
Major satisfaction	Not bad	43(33.9)	
	Good	64(50.4)	
	Very Good	20(15.7)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	5(3.9)	2.20±.56
	3.0~3.9	93(73.2)	
	2.0~2.9	25(19.7)	
	1.9	4(3.1)	
Course motive	Employment	39(30.7)	
	Recommendation	44(34.6)	
	Aptitude	35(27.6)	
	Other	9(7.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성고정관념,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전공만족도는 학교만족(F=19.53, p=.000), 전공선택만족(F=23.12, p=.000), 성적(F=11.19, p=.000), 지원동기(F=18.28,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셀프리더십은 나이(F=6.63, p=.002), 학년(F=11.00, p=.000), 종교(F=5.31, p=.001), 지원동기(F=11.1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성고정관념,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성고정관념,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고정관념은 전공만족도(r=-.419,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셀프리더십(r=-.284,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r=.427,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2. Subjective stereotypes,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Stereotypes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M±SD	t/F(p)scheffe	M±SD	t/F(p)scheffe	M±SD	t/F(p)scheffe
Age(yer)	≤20 [*]	1.31±.55	0.02(.974)	2.88±.12	.434(.649)	2.15±.15	6.63(.002) a<b,c
	20~25 ^{**}	1.31±.47		2.96±.50		2.61±.40	
	≥25 ^{***}	1.36±.43		2.79±.97		2.58±.75	
Grade	2nd [*]	1.27±.52	.562(.571)	2.94±.47	.098(.907)	2.36±.32	11.00(.000) a<b,c
	3rd ^{**}	1.31±.47		2.93±.53		2.68±.42	
	4th ^{***}	1.41±.39		2.99±.47		2.70±.28	
Religion	Protestant	1.19±.41	1.73(.147)	3.10±.43	2.01(.096)	2.78±.34	5.31(.001)
	Catholic	1.24±.53		2.80±.50		2.53±.27	
	Buddhist	1.28±.29		2.96±.11		2.57±.28	
	None	1.41±.52		2.85±.50		2.44±.41	
	Other	1.84±.00		2.94±.00		2.70±.01	
College satisfaction	Bad [*]	1.36±.57	.179(.910)	2.76±.08	19.53(.000) a,b,c<d	3.05±.01	3.80(.052)
	Not bad ^{**}	1.29±.47		2.77±.38		2.48±.41	
	Good ^{***}	1.35±.47		3.02±.45		2.59±.35	
	Very Good ^{****}	1.27±.52		3.77±.07		2.87±.39	
Major satisfaction	Not bad [*]	1.36±.49	.470(.626)	2.63±.33	23.12(.000) a<b<c	2.58±.44	.626(.536)
	Good ^{**}	1.27±.43		3.03±.44		2.54±.41	
	Very Good ^{***}	1.35±.57		3.33±.44		2.66±.19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 [*]	1.47±.62	.534(.660)	3.81±.03	11.19(.000) a<b,c<d	2.50±.01	.269(.848)
	3.0~3.9 ^{**}	1.33±.48		2.92±.47		2.59±.40	
	2.0~2.9 ^{***}	1.24±.46		2.97±.24		2.55±.45	
	1.9 ^{****}	1.17±.45		2.19±.09		2.45±.01	
Course motive	Employment [*]	1.33±.51	.263(.852)	2.94±.34	18.28(.000) a,b<c	2.30±.32	11.12(.001) a<b,c,d
	Recommendation ^{**}	1.31±.44		2.75±.38		2.63±.40	
	Aptitude ^{***}	1.34±.47		3.32±.48		2.75±.35	
	Other ^{****}	1.19±.54		2.46±.29		2.77±.26	

a, **, ***, ****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ubject's stereotypes, major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Variables	Stereotypes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Stereotypes	1		
Major satisfaction	-.419 ($<.001$)	1	
Self-leadership	-.234 ($<.008$)	.427 ($<.001$)	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의 성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셀프리더십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남자 간호학생의 성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이 낮았으며,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성고정관념은 낮고 전공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고정관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1.3점이었다. 간호학생을 상대로 성고정관념에 대해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학생 2~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 성고정관념 점수는 5점 만점에 2.6점 이었고,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3] 에서도 2.8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보다 성고정관념이 높았다. 남자 간호학생이 일반적인 남자 학생들에 비해 성고정관념의 점수가 낮은 것은 간호직을 여성 중심적인 직업분야로 생각하기보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일반화하여 생각하는 직업적 성 평등 가치관이 더욱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은 나이가 높고 뚜렷한 지원동기가 없는 학생이 높았는데 이는 정효주[19]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낮을수록 성고정관념이 높아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9로 남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3.9점 이었고[19], 장태정과 문미경[24]의 연구에서 3.8점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점수였다. 정효주[19]의 연구에서 전문직 직업을 전공하게 되는 학과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이론식 수업만 실시하는 저학년보다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을 병행해야 고학년이 비율적으로 많아 나타난 결과

로 해석된다.

성고정관념과 전공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성고정관념이 증가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아졌는데 이는 성고정관념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게 되며, 심리적 안정감과 학업적 성취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낮은 성고정관념은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축소시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학업 및 전공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25].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학교와 전공에 대해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적이 높으며,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7점으로 남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조사한 정효주와 채민정[19]의 연구에서 3.65점으로 나타난 것과 장태정, 문미경의[24]의 연구에서 3.51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부요인별로는 자기보상이 3.2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비판이 2.4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정효주[19]의 연구에 자기보상이 3.9점으로 가장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자 간호학생의 셀프리더십은 나이와 학년이 증가할수록 셀프리더십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학년이 될 수록 전문직으로서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간호학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고정관념과 셀프리더십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성고정관념이 증가할수록 셀프리더십이 낮아 졌는데 이는 셀프리더십이 과업 달성을 위해 목표 설정과 내적 동기 부여를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15]으로 성고정관념이 높으면 간호학을 여성 중심의 학문이라 여기고 스스로 위축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 간호학생이 간호학을 전공하면서 성고정관념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을 낮추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간호학생의 성고정관념을 낮추고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 후속 연구로 적극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 남자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최근 대학에서 간호단위가 커지면서 남자 간호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남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고정관념과 관련된 전공만족도 및 셀프리더십을 파악함으로써 남자 간호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업 및 취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J H Shin, M H Seo, M I Lee, Nursing Jobs and Gender in our age of convergence: Research on Male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3, pp.287-297, March,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3.287>
- [2] S j Ju, J H Choi, C M Kim, D M Oh, M S Park,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ping Experience of Men in Nursing as a Student, Vol.27 No.2 pp.110-122, June, 2018.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8.27.2.110>
- [3] E J Yoon, H J Kown, H J Kim, Subjec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Vol.42, No.3, pp.342-350, Jun, 2012.
DOI: <https://doi.org/10.4040/jkan2012.42.3.342>
- [4] E. J. Sullivan, "Men in nursing: The importance of gender diversit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16, No.5, pp.253-4, September, 2000.
DOI: <https://doi.org/10.1053/jpnur.2000.9455>
- [5] J H Yi, E Y Jang, S M Lee, The Predictors of Adaptation to College among Nursing Students and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37, No.2, pp.12-24, December, 2012.
DOI: <https://e-jhis.org/upload/pdf/21400538>
- [6] Stott AJNET. Exploring factors affecting attrition of male students from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a qualitative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27, No.4, pp.325-32. May, 2007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6.05.013>
- [7] K O Park, M Yu, J K Kim, Experience of Nurses Participating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Journal of Korean Acad Nurs Adm, Vol.23, No.1, pp.76-89, January, 2017.
DOI: <https://dx.doi.org/10.1111/jkana.2017.23.1.76>
- [8] K J Lee, M Y Kim,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le Nurses, Vol.26, No.1, pp.46-57, January, 2017.
DOI: <https://dx.doi.org/10.7475/jkana.2014.26.1.46>
- [9] K. McLaughlin, O.T. Muldoon, M. Moutray, Gender, gender roles and completion of nursing education: A longitudin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30, No.4, pp.303-307, August, 2010.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9.08.005>
- [10] C S Shim, Y S Lee, S H Oh,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SexualAssault Awareness and Permissible limit in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18, No.2, pp117-125, June, 2012.
DOI: <http://dx.doi.org/10.4069/kiwhn.2012.18.2.117>
- [11] S J Han,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Adult Nurs, Vol.25 No.5, pp.559-566, June, 2013.
DOI: <https://doi.org/10.7475/kjan.2013.25.5.559>
- [12] M O Lee, M Y Lee, S Y ·Kim,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Their Perception of Learning,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1 No.3, pp.417-425, August,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3.417>
- [13] E Y Yeom, K S Seo,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 Nursing Professionalism on Turnover Intention among Male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12, pp.794-804, May, 2016.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6.16.12.794>
- [14] H S Par, J H Ha, M H Lee, The Relationship amoang Gender-Role Identity, Gender Stereotyp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Male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erstrial, Vol.15 No.5, pp.559-566, June, 2013.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4.15.5.2962>
- [15] M K Ahn, M H Lee, H K Kim, S H Jeong,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mong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 Nurs Adm, Vol.23, No.5, pp.585-594, February, 2015.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5.21.2.203>
- [16] S O Kim, Y H Kang, A Prediction Model on the Male Nurses' Turnover Intenti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8, No.5, pp.585-594, pp.585-594, June, 2016.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6.28.5.585>
- [17] H S Kim, J S Lee, Turnover Experience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7, No.1, pp.25-38, June, 2017.
DOI: <https://doi.org/10.4040/jkan.2017.47.1.25>
- [18] D I Kim.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3): Aspect of social psychology, sociology sexual, Seoul: Soomoonsa, 1999.
- [19] H J Jung, M J Cha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Male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5, pp105-117, May,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5.31>
- [20]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4.
- [21] C. C. Manz, Improving performance through self leadership, national productivity Review, Vol.2, No.3, pp.288-297, August, 1983.
DOI: <https://doi.org/10.1002/npr.4040020308>
- [22] H S Kim,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Teachers*,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23] E S An, S K Chu,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7, No.1, pp-14-21, May, 2011.
- [24] T J Jang, M K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 Nurs Adm, Vol.22, No.4, pp.344-352, September, 2016.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4.344>
- [25] J. N. Igbo, V. C. Onu, N. O. Obiyo, Impact of Gender Stereotype on Secondary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SAGE Open, Vol.5, No.1, pp.1-10, March, 2015.
DOI: <https://doi.org/10.1177/2158244015573934>

김 원 종(Won-Jong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9년 2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2019년 2월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삶의 질

김 중 경(Jung-Kyoung Kim)

[정회원]



- 20012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17년 8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시뮬레이션 교육, 삶의 질